

## 발달장애학생의 합창경험 의미에 대한 질적연구\*

윤 정 하\*\*

대구대학교 한국특수교육문제연구소 박사후 연구원

김 용 옥\*\*\*

대구대학교 특수교육학과 명예교수

---

### 《요약》

---

본 연구는 발달장애학생이 주요 생활공간인 학교에서의 합창경험을 통하여 어떻게 적응을 하며, 발표회를 준비하면서 겪는 상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합창경험이 이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참여자는 발달장애학생 6명으로 하였고, 2017년 4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여름 방학 기간 및 학교 행사를 제외한 총 20회기 합창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자료수집은 심층면담자료, 현장노트자료, 비디오 촬영자료 등을 활용하였고, 다양한 질적 자료 분석 방법에 따라 분석하는 과정을 거쳤다. 합창경험의 과정에서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 교사와의 상호작용, 그리고 활동 경험과 적응 등을 관찰 분석하여 합창경험의 의미에 대해 다음과 같이 6개의 대범주를 도출하였다. 발달장애학생에게 합창경험 의미는 새로운 세상과의 만남, 숨겨진 재능을 발견하는 행복, 모든 것을 잊게 하는 몰입, 보석처럼 빛나는 화려함, 선생님과의 소통을 통한 배움터 및 친구들과 함께 하는 세상 등의 의미가 있었다. 합창경험 의미의 분석을 통해 발달장애학생을 더욱 이해하게 되었고, 합창경험은 발달장애학생에게 정서적인 안정감을 갖게 하며 풍부한 정서함양과 교사와의 의사소통을 촉진하고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향상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

주제어 : 발달장애학생, 합창경험, 질적연구

---

\* 이 논문은 제 1저자의 박사 학위논문 일부를 수정 및 요약하였음.

\*\* 제 1저자

\*\*\* 교신저자 (yongkim@daegu.ac.kr)

## 1.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교사 : 나에게 합창이란?

요한 : 저에게 합창은 '행복'이에요, 행복한 기억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하는 게 정말 좋아요,

환희 : 음... 저는 '게임'과 같아요, 계속해도 재미있잖아요, 합창은 하면 할수록  
더 재밌고 신나요, (학교 교지 통권 제 63호 연구 참여자의 글)

특수교육 현장에서는 여러 교과에서 다양한 교수방법 및 교수전략을 사용하여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많은 교과에서 직접적인 경험보다는 간접적인 경험위주로 일차원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충분한 상호작용과 피드백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비해 음악실의 풍경을 살펴보면 학생은 직접 참여와 자신의 신체활용을 통하여 음악을 직접적으로 듣고 소리의 자극에 반응하며 말로는 표현하기 힘든 감정을 목소리로 표현하고 하나의 완성된 곡, 즉 합창이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성취감과 즐거움을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발달장애학생의 경우 이들이 느끼는 감정 그대로를 표현하며 음악 그 자체를 순수하게 즐기고 있는 모습이다.

음악은 사람들의 마음을 밝고 풍요롭게 바꿀 수 있으며 정신적으로 힘들 때 우울한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다. 또한 인간의 정서적 감정들과 연관되어 그들이 즐거움과 편안함을 느끼도록 자극하는 수단이 되고, 긍정적인 정서를 갖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감정, 자유연상 및 행동의 내면적인 부분과 내분비, 순환기, 호흡, 혈압과 같은 생리적 측면에도 영향을 준다(이소영, 2017).

음악을 표현하는 다양한 형태 중에서도 노래를 하는 활동은 비교적 음악에 접근하기 쉽도록 도와준다. 혼자서 노래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여러 사람이 소리를 모아서 합창을 하는 경험은 아름다운 화음을 공유하고 미적 감수성을 자극하며 동시에 원만한 사회성을 발달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인 의의가 높다(김청아, 2015). 노래를 하는 경험은 인간의 본능적인 음악 표현의 수단이 될 뿐 아니라 음악의 기초영역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며 학생들에게 심미적 만족감과 즐거움을 주고 전체 속의 조화와 유대감을 형성하게 하는 필수적인 활동이다.

음악영역 중 특히 합창은 각자 맡은 성부의 소리를 책임감 있고 정확한 음정으로 소리 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을 보다 능동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동시에 상대 성부의 소리를 들으며 노래를 불러서 주의 집중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태도도 길러지고 개인적으로서의 경험과 함께 타인과 음악을 만들어야 하므로 서로 간의 의사소통 능력을 증진시키는 집단활동을 경험하게 한다. 그 과정 속에서 서로에게 느끼는 내면의 감정을 음악을 매개로 하여 친밀하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합창 구성원들 간의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연결하여 주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박소연(2000)의 연구에서는 합창활동이 발달장애학생의 인지적인 면과 정서적인 면 그리고 사회적인 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합창활동은 소리를 융합하는 과정 속에서 인내심이 길러지며 음악의 이해도와 가창능력, 음악성이 높아졌다고 보고하였다. 김인정(2008) 또한 합창경험으로 ADHD 아동의 부주의 행동, 과잉성 및 충동성 행동이 감소하였고, 아동의 음악적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되었으며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태도의 형성 및 자아 존중감과 자신감이 많이 향상되었다고 하였다.

발달장애학생은 발달단계에 따른 사회적응기술이 지체되어 지역사회에서 적절하고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하지 못함으로 사회적 부적응을 경험하게 되며 독립적인 생활유지가 어렵고, 이것은 결국 발달장애학생을 더욱 고립시키는 원인이 된다(국립특수교육원, 2003; 김정일, 2005). 따라서 발달장애학생에게는 각자의 활동들이 전체로 어우러질 수 있게 하는 합창경험을 제공하고, 이러한 합창경험이 발달장애학생에게 어떤 의미를 제공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의미가 있고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발달장애학생의 음악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사전-사후 검사 결과를 보거나 통계를 이용한 양적연구를 통해, 발달장애학생에 대한 음악교육의 내적 의미보다는 치료를 위하여 음악의 역할을 제시하거나 발달장애학생과 음악이라는 단편적인 상황을 강조하며 음악치료의 효과성을 강조하는 것에 치우친 경향이 있다.

발달장애학생의 음악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문헌을 고찰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 2016년까지 약 17여 년 동안 음악치료활동을 제외한 발달장애학생의 집단음악활동과 관련된 논문을 국내 전문검색 사이트인 ‘한국학술정보원(RISS4U)’, ‘학술데이터베이스(KISS)’, ‘DBpia’, ‘ERIC’, ‘KERIS’를 이용하여 검색, 조사한 결과 발달장애학생과 집단음악활동의 사전-사후 검사와 관련된 논문은 22편이 검색되었고, 발달장애학생이 음악에 실제적으로 접근하는 방법과 실제 합창 및 연주와 관련된 생생한 현장경험 및 음악활동을 하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변화해 가는 과정을 파악하는 질적연구는 퓨전 합창을 통한 발달장애학생의 공감 형성과정 탐색 실험연구를 한 정진아(2016)의 논문을 제외하고는 극히 드물었다. 이는 합창이나 음악 경험이 어떻게 생성되고 일반 교과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발달장애학생의 합창 경험은 어떤 양상을 띠며 합창 경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의미를 생성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제한점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실제 현장교육과 연계되지 못하는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최근 특수교육 분야에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심층면담과 같은 질적연구 방법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백혜주, 홍정숙, 2016). 하지만 장애학생의 음악과 관련된

연구들에 있어서는 심층면담과 같이 장애학생 당사자에 대한 이해를 심도 깊게 이해할 수 있는 질적연구 보다는 실험연구나 조사연구와 같은 양적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음악 관련 연구들은 대부분 외부자의 관점에서 접근하며 그 과정 속에서의 내면의 변화를 속속들이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었다. 양적연구는 전체적인 윤곽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반면, 질적연구는 대상에 대하여 질적인 내용을 연구하는 것에 있어 유용한 연구방법이다(Bogdan & Biklen, 2008). 또한 발달장애학생의 음악경험에 대하여 이해하는 일은 상황적, 맥락적인 접근을 통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심도 깊은 해석을 통해서 가능한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질적연구 방법이 보다 효과적이다.

이에 발달장애학생의 합창경험을 다루는 연구는 연구자가 직접 지도하면서 학생들에 대한 관찰 및 면담을 통해, 그들이 변화하는 모습과 행동의 이면에 감추어진 감정은 어떠한지를 알아보고 발달장애학생을 이해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질적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발달장애학생의 주요 생활공간인 학교에서의 합창경험을 통하여 어떻게 적응을 하고 발표회를 준비하면서 겪는 상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합창경험에 대한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지 관찰과 기록을 통해 알아보고 그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발달장애학생의 음악교육을 이해하고 의미 있는 교육이 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 참여자

### 1) 연구 참여 학생

본 연구는 사회적 환경에 적응하기에 곤란을 겪으며 문제적 상황의 대처 능력이 부족한 발달장애학생의 합창경험 의미에 대한 연구로서, 이를 위하여 D광역시 소재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교 과정의 발달장애 남학생 2명, 여학생 4명, 총 6명을 연구자의 연구 목적에 맞는 연구대상으로 의도적 표본추출 전략을 사용하여 연구 참여

학생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한 연구 참여 학생의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발달장애로 진단받은 학생으로서 기초적인 발성과 호흡법 및 음악적 이론 등을 기본적으로 학습하고 있는 1년차 합창단 신입생을 제외한, 2년 이상의 합창단 활동을 하면서 발표회와 합창대회 경험이 있으며 음악에 대한 관심이 높고 합창경험에 대한 의미를 연구자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심층면담이 가능한 수준을 갖추고 있는 학생을 선정하였다. 또한 기숙사에서 주로 생활하여 연구자가 관찰과 심층면담이 용이한 학생 중에서 학부모가 동의하고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학생을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 학생을 직접 만나서 본 연구에 대한 취지를 설명을 하고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았으며 이러한 절차를 거쳐 선정된 연구 참여 학생은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 1명,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 1명,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 3명,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 1명이다. 다음은 연구 참여 학생의 배경을 개인적 특성위주로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의 특성

성명	성별	연령/학년	장애유형 및 등급	면담기간	
				정기발표회전	발표회 후
오지오	남	19세/고3	지적장애 2급	2017.6-10	2017.11
이라라	여	19세/고3	학습장애	2017.6-10	2017.11
박환희	여	21세/고3	지적장애 2급 (청각장애4급)	2017.6-10	2017.11
이보리	여	19세/고3	지적장애 2급	2017.6-10	2017.11
전요한	남	18세/고2	학습장애	2017.6-10	2017.11
김시아	여	17세/고1	지적장애 2급 (ADHD)	2017.6-10	2017.11

## 2) 연구 참여 교사

연구의 연구 참여 교사는 D시 소재 특수학교에 근무하며, 이 연구에 참여하는 학생의 담임교사로서 남교사 1명, 여교사 3명, 총 4명이다. 연구 참여 교사는 연구 참여 학생의 담임교사로서 연구 참여 학생의 일상적인 학교에서의 생활 태도와 또래와의 관계 변화는 물론이며, 연구 참여 학생들과 합창 무대에 함께 선 경험이 있어 학생들의 합창경험으로 인한 행동변화나 심리적인 변화 등을 가장 가까이에서 관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고 연구자에게 관찰에 대한 많은 정보를 줄 수 있다는 용이성으로 인하여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구 참여 교사들에게 연구 목적과 절차 등에 대한 설명을 하였고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얻었으며 연구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았다. 연구 참여 교사들의 배경은 <표 2>와 같다.

<표 2> 연구 참여 교사들의 배경

순	성명	성별	현재 담당학년	전공 및 교육경력	합창 및 연수를 포함한 음악활동 경험
1	A	남	고3	특수교육전공, 19년	타악기 연수 2회 참가, 전국발달장애합창 대회 참가
2	B	여	고1	작곡전공, 12년	음악전공(작곡), 전국발달장애합창 대회 3회 참가
3	C	여	고2	특수교육전공, 10년	교내 예술제 합창무대 참가
4	D	여	고3	특수교육전공, 5년	전국발달장애합창단 초청공연 2회 참가

## 2. 연구 프로그램

본 연구는 2017년 4월부터 11월 정기합창 발표회까지 실시하였다. 연구 프로그램은 총 20회기로 계획되었으며, 이는 발달장애학생이 20회기 동안의 연습을 거쳐 최종일에는 연주 무대에 올라 합창무대를 선보인다는 목적을 가졌기 때문이다.

발달장애학생이 보다 자유롭고 편안한 모습 속에서 다양한 합창 경험을 즐기게 하기 위해서 정해진 틀에 의해 연습하기 보다는 20회기 동안 친구들과 편안한 상태에서 연습을 진행시켰다. 발달장애학생의 음악적인 기능수준을 고려한 합창곡의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적인 내용의 곡 중에서 음역이 낮은 곡

둘째, 가사와 멜로디가 반복되는 곡

셋째, 느낌이 부드럽고 따뜻하며 평화로운 느낌의 곡

넷째, 애정을 주고받을 수 있고 감사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곡

선정곡은 보통빠르기의 템포를 가진 정적인 곡, 조금빠르기의 템포를 가진 동적인 곡으로 분류하고 2부, 3부 합창곡 중에서 학생들의 능력에 맞는 곡을 지도하였다. 번안곡을 포함하여 가사가 서정적이고 쉬운 동요나 가요를 위주로 선곡하였고, 이는 평상시에도 많이 듣고 부르며 익숙하고 친숙한 멜로디라인으로 발달장애학생에게 부담 없이 합창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으로 기대하였기 때문이다. 연구자의 의도는 노래도 하고 쉬운 동작들을 율동으로 따라 하면서 친구들과 선생님들 모두 하나가 되어 함께 만들어 가는 세상이라는 의미를 부여해주고 싶었다. 노래 부르기

율동 등의 다양한 음악적 경험은 장애학생의 공격성을 감소시키고 일반학생과의 신체적 접촉을 촉진시켜 사회적 관계를 향상시킨다. 특히 합창 활동에 함께 하는 율동은 전신의 근육조절을 돕기도 하며, 발달장애학생에게는 가사위주로만 부르기 보다는 신체적 표현을 함께 하는 곡에 주의 집중을 오래하고 리듬을 습득하는데 도움을 준다. 연구자가 생각한 선정곡의 지도 요소 분석은 <표 3>과 같다.

<표 3> 지도 요소 분석

순서	곡명	박자	조성	리듬	화음	빠르기	주요 악상 표현
1	나뭇잎배	6/8	라장조	6/8 쉬운리듬	I, IV, V	보통빠르기	rall, crese
2	산하고 하늘하고	4/4	사장조	4/4 쉬운리듬	I, IV, V	조금빠르게	mp, mf
3	바닷가 에서	6/8	사장조	6/8 쉬운리듬	I, IV, V	보통빠르기	rit, pp, mp, mf
4	아름다운 세상	4/4	사장조	4/4 쉬운리듬	I, IV, V	조금빠르게	mf, mp
5	사랑으로	4/4	다장조	4/4 쉬운리듬	I, IV, V	보통빠르기	mp, mf, rit
6	땅위의 기쁨	4/4	사장조	4/4 쉬운리듬	I, IV, V	보통빠르기	mp, f, mf

### 3. 자료 수집

질적연구에서 연구자는 맥락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연구 현장에 참여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는데, 연구자는 본 연구에서 반주자로서 참가하여 관찰자 입장에서 모든 과정을 관찰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 자료 수집은 관찰자료와 현장노트자료, 면담자료, 비디오 촬영자료 등으로 이루어졌다

#### 1) 관찰자료와 현장노트자료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발달장애학생과 함께 합창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참여관찰 방법을 이용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전반적인 내용, 그리고 반주를 하면서 느껴지는 연구자와 발달장애학생간의 상호작용과 합창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관찰 사항들을 기록하였다. 현장노트의 기록은 특정 사건이 언제 어떻게 일어났는지 현장에서 참여, 관찰하는 동안 일어난 상황을 비교적 상세하게 묘사하고자 하였고, 연구 참여자들에게 불필요한 영향이나 간섭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의 관찰과 연구 참여자의 진술을 기록하는 현장기록을 진행하였으며 현장노트와 즉석메모를 사용

하였다. 회기 당 관찰 시간은 정규수업시간으로 40분이었으며 최대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현장노트를 기술하고자 했다.

## 2) 면담자료

면담에 앞서서 모든 면담자들에게 녹음하는 것을 허락받았고, 연구자의 연구 목적에 따라 각 면담시간은 대체로 1명당 40분에서 50분 정도로 하고 정기발표회 전과 정기발표회 후 모두 3회에 걸쳐 실시하였다. 면담 질문지는 발달장애학생의 집단 음악활동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참고하되, 본 연구가 질적연구인 점을 고려하여 작성하였으며 발달장애학생의 합창경험으로 한정된다는 점을 반영하였다. 그리고 발달장애학생의 합창지도 경험이 있는 음악을 전공한 특수교사 2명을 대상으로 예비 연구 성격의 면담을 실시하면서 면담 질문지를 수정하고 보완하였으며 최종안은 특수교육과에 재직 중인 교수 2인의 자문을 얻어 완성하였다. 학생면담은 개인별로 개방형 질문과 비지시지적인 질문 위주로 이루어졌고 면담내용의 검토 시, 의문점은 기속사로 찾아가서 개별적으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의 장소는 익숙하고 조용한 초등 음악실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교사면담도 학생면담과 마찬가지로 개인별로 교실에서 합창경험의 의미와 관련된 부분을 중심으로 학생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거나,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감정들에 대해서 개방형 질문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면담이 이루어졌다. 연구자와의 대화에서 편안함을 가지도록 하기 위하여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에서는 중간에 말을 끼어들거나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였다.

## 3) 비디오 촬영자료

관찰에서 빠져있는 부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비디오 촬영을 하였고, 비디오의 설치는 음악실의 피아노 뒤편에 설치하여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고 시선이 잘 가지 않도록 연구 참여 학생들이 앉아 있는 자리와 마주보도록 하였다. 비디오 촬영은 발달장애학생들의 말과 움직임을 녹음뿐만이 아니라 노래 할 때의 표정이나 자세와 몸짓 까지 포착할 수 있어 합창 관련 행동을 아주 세밀하게 기록할 수 있었다. 또한 비디오 촬영을 통한 자료수집방법은 반복적으로 볼 수 있어서 참여자의 말과 행동을 기록하고 분석하는데 효과적으로 이 후 관찰이 종료된 후에도 다시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 4. 자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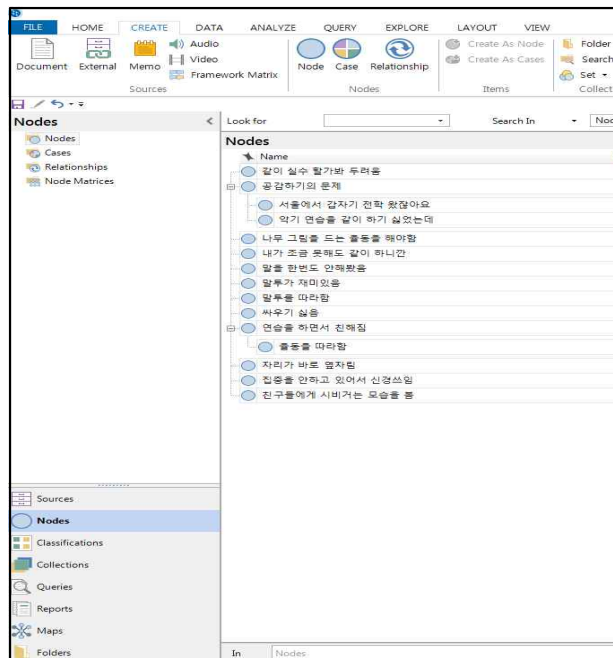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전사 작업, 메모 작업, 개방 코딩, 심층 코딩, 귀납적 범주 분석의 5단계로 구분하여 연구 자료를 분석 및 해석하였다. 코딩과정에서는 NVIVO 11



PRO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NVIVO 11 PRO 프로그램에 따라 프로젝트를 만들고 자료를 자세히 읽으면서 동일시하거나 비슷한 속성을 지닌 것들을 목록화하고 범주화하여 트리 구조를 완성하였다. 코딩 예시와 NVIVO 11 PRO 프로그램 트리 노트 도출 예시는 각각 <표 4>, <그림 1>과 같다.

<표 4> 코딩 예시

의미 범주	상위 범주	본질 주제
소리 내는 즐거움 다양한 환경에 대한 호기심	새로운 세상과의 만남	합창 경험 의미
음악적인 재능을 발견 인정받고 싶은 마음	숨겨진 재능을 발견하는 행복	
어려움을 극복 집중하게 해주는 활동	모든 것을 잊게 하는 몰입	
빛나는 존재로 느낌 아쉬움과 허무함	보석처럼 반짝이는 화려함	
있는 모습 그대로 스스로 할 수 있다는 희망 소중한 존재로 인식	선생님과의 소통을 통한 배움터	
도외주는 기쁨과 모방하는 친밀감 배려과 책임감 부정적인 행동을 줄여주는 절제와 양보	친구들과 함께 하는 세상	



<그림 1> NVIVO 11 PRO 프로그램 트리 노트 도출 예시

## 5. 연구의 진실성 및 연구 윤리

본 연구에서는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 방법론적인 면에서 즉, 자료수집과 코딩하기 등은 특수교육 분야의 질적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2명의 교사에게 조언을 구하고 연구에 반영하였으며 연구 내용적인 면에서는 전공교수와 의논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장애학생의 음악지도를 5년 이상 지도한 음악담당 교사 2명에게 본 연구 결과를 보여주고 본인들이 경험한 것과 비슷한지,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검토를 받았다. 즉 수집된 자료가 연구의 목적과 관련하여 타당한 것인지, 주제는 분류하는 과정에서 원 자료들이 주제별로 범주화 되었는지에 관한 검토까지 의뢰하였다. 자료 수집에서는 관찰에서 빠져있는 부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비디오 녹화를 하였고 녹화 부분을 전사한 후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20회기 전체 합창활동의 지휘를 담당하는 교사와 녹화내용을 살펴본 후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전사내용을 면담에 참여한 연구 참여 담임교사에게 보내서 뜻의 왜곡이 없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본 연구를 실행하기 위한 연구 윤리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발달장애학생의 부모, 연구 참여자들에게 본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서를 받았으며 비밀유지와 익명성에 대하여 설명해주었고, 원치 않는 상황과 곤란한 답변은 거부할 수 있으며 참여 과정에서 빠지기를 원하면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또한 연구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연구과정 사이에 취득한 자료를 폐기된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 III. 연구 결과

### 1. 새로운 세상과의 만남

#### 1) 소리 내는 즐거움

참여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합창을 매우 좋아하며 즐거워했고 합창경험에 대하여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도레미 합창단의 베이스를 담당하고 있는 요한이와 알토를 담당하고 있는 보리는 합창 연습하는 시간이 즐거워서 소리 내는 법과 화음 만드는 법 등 합창기술에 관한 모든 것을 배우고 싶다고 하였다.

네... 저는 합창연습시간이 재미있어요, 전혀 힘들지 않아요, 미술시간도 좋고 정 보시간도 좋는데 합창연습시간이 진짜 좋아요, 가끔씩 높은 음이 잘 올라가지 않아

힘들 때도 있지만 합창기술을 다 배우고 싶고 안 힘들게 높은 음정도 소리 내고 싶어요,  
(요한)

금요일 오후 합창시간이 기다려져요, 친구들과 노래도 하고 율동도 하고...  
금요일 급식 먹을 때부터 기분이 좋아요, 음... 합창하면 선생님한테 혼난 것도 잊을  
수 있고, 연습이 잘되면 그날은 더 기분 좋아요,  
(보리)

위의 대화를 통해 요한이는 일주일에 2시간씩 합창 연습하는 시간을 힘들어하  
지 않고 즐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요한이가 좋아하는 게임과 컴퓨터  
를 다룰 수 있는 정보시간과 합창연습시간을 같은 선호활동에 놓는 것은 합창에 대  
해 강한 애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보리도 합창 연습시간이 기다려  
지고 선생님한테 혼난 기억이나 친구들과의 나쁜 기억도 합창 연습을 하며 잊을 수  
있었고 합창이 끝나면 기숙사에서 나와 집으로 가는 주말이라서 더 행복하다고 하였  
다. 알토를 담당하는 시아와의 면담에서 “전학을 와서 다른 학생들도 있었는데 내가  
소리를 잘 내고 음악수업시간에 리듬 치기를 잘해서 음악 선생님이 나를 합창부에  
넣어줬어요. 지금 알토 파트 중에서 내가 제일 잘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기분이 좋  
아요. 전학 와서 합창단원이 될 수 있어서 이 학교가 참 좋아요.”라고 표현하였는데  
이것은 합창이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분야이고 선생님들과 친구들에게 인정을  
받아 좋고 즐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 2) 다양한 환경에 대한 호기심

다음은 합창경험이 발달장애학생에게 새로운 환경으로의 접촉기회를 주어 발달  
장애학생이 호기심을 갖게 되고 행복한 감정을 느끼게 해준다고 하는 예이다.

다양한 곳을 가보는 게 정말 좋았어요,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하는 것이  
정말 좋았어요, 음... 올해 서울에 갔을 때 가는 길에 버스에서 잠이 들었거든요, 도  
착했다길래 내려서 계속 걷는데 주변을 보니 애들이 없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서  
돌아보니 뒤에 애들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 제가 잠이 덜 깨  
서 혼자서 다른 곳으로 가고 있던 거예요, 그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환희)

노래하면 행복해요, 그리고 버스를 타고 멀리 여행가는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무대에서 노래 할 때면 그냥 웃음이 나고 좋아요, 저번에 서울에 연주가면서 버스  
안에서 게임하면서 가는데 갑자기 눈이 와서 진짜 신기하고 기분 좋았어요, (시아)

합창무대에 직접 함께 서서 연주도 하였던 연구 참여자인 A, D교사는 발달장애

학생이 무대에서 연주하는 것을 통하여 연주 이외의 것을 체험하는 것이 많다고 말했다.

연습시간도 의미가 있겠지만 한 곡을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하고 연주 무대에서 는 과정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엄청나다고 생각해요, 연주를 한번 나가려면 같이 버 스를 타고 행선지까지 함께 해야 하며 무대의상도 서로 서로 챙기고 갈아입어야 하 니깐 다양한 환경에 계속 노출이 되고 스스로 느끼는 것들이 있죠, 뭐랄까 새로운 무대, 새로운 환경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번에는 이렇게 해보야겠다는 융통 성이 생길 수도 있고요, 합창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엄청난 경험들을 하는 거 같아요, (A교사)

저번에 KBS홀에서 연주했잖아요, 보리는 어디 함께 갈 때 인쇄심이 없어 기다 리는 것을 싫어하거든요, 늘 혼자 하고 싶어 하고 쓸데없는 욕심 부리고 그런 게 있 어서 서울까지 어떻게 데리고 갈지, 큰 걱정이었는데 여러 합창단이 화려한 무대 의 상을 입고 다양한 악기로 연주하고 본인도 그 무대에 서서 연주하는 게 신기했던지 내려오는 버스에서도 즐거워하고 그랬어요, (D교사)

## 2. 숨겨진 재능을 발견하는 행복

### 1) 음악적인 재능을 발견

연구 참여 학생들은 합창경험을 하면서 발표회와 합창대회 등을 통하여 자신들 도 모르고 있던 숨겨진 음악적 재능을 발견하였다. 합창경험은 이러한 재능을 바탕 으로 하여 대회에서의 수상이나 발표회 무대에서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성취동기를 가지고 하였고, 또 목표를 달성했을 때 느끼는 행복이라는 의미라고 하였다.

연구 참여자이면서 음악전공자인 B교사는 합창을 통하여 발성 연습하는 시간이 누적될수록 발달장애학생들의 성량과 소리가 풍부해지는 것을 무대 밖에서 객관적으 로 평가했을 때, 몸소 체험할 수 있었다고 표현했다.

우리 아이들이 선천적으로 몸이 약하게 태어나서인지 발성하는 자세도 나쁘고 호흡이 많이 떨려요, 우리가 일반학교에서 가르쳐본 학생들과 다르게 복식호흡 연습 시키기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복식호흡을 계속 연습 시켜보니 무대에서 자세도 좋아지고 복식호흡을 계속하다보니 체력도 좋아지는 것 같아요, 마지막 리허 설 때 '바닷가'에서 부를 때 빨라지는 부분에서 학생들의 소리가 2년 전보다 너무 좋아져서 계속되는 연습은 이렇게 우리 아이들도 소리가 좋아질 수 있구나 싶어서... (B교사)

합창하면서 라라가 제일 많이 달라진 거 같아요. 자신감도 없었고 늘 소극적이고 말투도 의존적이었는데,, 완전히 다 나아진 건 아니지만 합창하면서 본인이 울동과 노래에 재능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 같아요. 특히 앞에 나와서 울동하고 그러면서 친구들한테 인정도 받고, 무대에 서면서 또 다른 신세계를 접하게 되는 거 같더라고요. 학년 초에는 반에서 억울한 일이 있어도 표현도 잘 안했었는데 지금은 자기 의견을 제법 소신 있게 말하고 라라가 많이 달라진 거 같아요.

(D교사)

11회기에 들어서면서 어느 정도 소리가 나면서 합창연습에 익숙해질 때 즈음 쥘베랑 카혼을 학생들에게 안내하고 한번 씩 돌아가면서 기본박자를 연주하게 하였다. 평소 본인의 목소리를 늘 마음에 안 들어 했던 시아가 쥘베에 관심을 가지고 혼자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보며 기본박자와 나누기박자도 연습을 하고 의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며 악기에 대한 재능까지 발견할 수 있었다.

## 2) 인정받고 싶은 마음

합창대회에서 또 금상 받으면 좋겠어요. 작년에 금상 받았을 때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이번에도 대회에서 금상을 받을 겁니다. 작년에 금상 받았는데 올해 상을 못 받으면 기분이 안 좋을 거 같아요. 계속 대회에 나가서 꼭 금상을 받고 싶어요. 그래서 열심히 해야죠.

(라라)

라라는 작년 전국장애인합창대회에서 금상을 받았는데 올해 또 금상을 받고 싶다고 말하였다. 올해 또 받고 싶고 열심히 하고 싶다고 말하는 것은 강한 성취동기를 가지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발달장애학생도 적절하고 뚜렷한 목표만 주어진다면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국장애인합창대회에서 수상하면 상금이 주어지고 상금이라는 포상은 발달장애 학생에게 합창연습을 열심히 하게 만드는 활력소가 된다. 실제로 연구 참여 학생 대부분이 상금에 대한 강한 집착과 열망을 보였다.

상을 받으면 상금이 나오잖아요. 노래 잘 부르고 울동 잘해서 상금 받으면 내가 좋아하는 카카오 캐릭터 필통도 사고 폰 케이스랑 악세사리도 살 수 있잖아요. 음... 금상 받았는데 상금을 안주면 기분이 안 좋을 거 같아요.

(라라)

라라는 합창 연습에 있어서, 대회에 나가 상금을 못 받으면 합창이 싫어질 수도 있다고 말하였다. 이는 합창단 학생들에게 상금은 합창연습의 강한 동기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연습을 계획할 때 동기를 높이기 위해서 가끔씩 금상을 수상하고

상금을 받으면 어떨까라는 질문을 통해 학생들의 성취동기를 자극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남아서 힘든 야간 연습까지 할 때에도 힘들지 않다고 말하였다.

노래 연습할 때에는...힘들다고 생각 안 해요, 높은음이 안 올라가도 힘이 안 들고,  
선생님이 나 독창시켜줄 때 점점 더 재미있어지고 힘들지 않아요, (지오)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야간 연습에도 자주 참여하는 지오는 연습을 하면서 힘들다고 표현하기 보다는“안 힘들어요. 목도 아프지 않고요”라고 말하였고 솔로를 시켜서 그 멜로디를 정확히 부르고 나면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감동을 받는 듯했다.

이러한 합창경험들과 동기들이 각 개인의 삶을 승화시키고 자아실현을 이룰 수 있는 역동적인 삶의 원동력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 3. 모든 것을 잊게 하는 몰입

#### 1) 어려움을 극복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합창단원들 대부분은 악보를 읽지 못하기에 이들만의 음성 익히기와 박자 지키기 등의 악보 듣는 방법을 통하여 새로운 곡을 배우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악보를 봐도 못 읽어내기 때문에, 소리를 듣고 외울 때 집중력을 가지고 정확하게 악보를 표현하려고 하였으며 쉽게 포기하지 않으려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합창단원들은 학교생활의 중심도 음악이고 일상생활에서도 음악을 듣고 따라하며, 악보를 읽지 못해도 정확하게 표현하려는 노력을 통하여 몰입하고 있었다.

날씨도 따뜻하니 애들이 즐려하기도 하고, 하기 싫어서 서로 안하려고... 시아 같은 경우에는 반항끼도 있고 해서 끝까지 데리고 갈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많이 했어요, 시아는 목소리에 대한 약간의 콤플렉스도 있고 하니 소리를 작게만 내려고 하고 입모양도 작게 하고 체육 하러 나가고 싶다고 계속 투덜거렸잖아요, 그런데 쟈베 솔로를 시키고 빠른 부분이 들어가니깐 재미도 있어지고 솔로 활동을 하면서 자신감을 얻은 거 같아요, 그 전보다 짜증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B교사)

발달장애합창단의 지휘를 맡고 있는 교사는 학생들이 악보를 못 읽는 상태이기 때문에 곡의 구조와 소리 내는 방법 및 화음 만드는 구조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음을 귀로 듣고 소리로 내면서 합창하기까지 많은 연습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부분 합창단 학생들이 오랜 기간 트레이닝을 해왔고 초등학교부터

연습을 시켜 와서 2년 이상의 적응시간이 걸렸으며, 현재 구성원은 중학생과 고등학생으로 비교적 복잡한 음표나 음정도 어려움 없이 현재는 읽을 수 있다고 했다.

지오와 요한이, 동훈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두세 번 듣고는 허밍으로 바로 따라 하더라고요, 지오 같은 경우에는 전체 곡 가사를 악보 없이 한글로만 적어주는데도 얼마나 연습을 해오는지... 우리 애들은 음원도 다들 어디서 그렇게 다 듣고 오는지 바로 다 따라하고... 오랜 시간동안 훈련해왔던 힘든 시간이 지나니깐 이렇게 되는 거 같아서... 애들이 자신감도 생긴 거 같고... (지휘자)

긴 시간동안 끊임없이 청음 연습을 한 지오와 요한이는 조성에 상관없이 몇 번의 청음을 바탕으로 교사의 도움을 살짝만 받으면 혼자 파트 연습까지 할 수 있게 되었고, 악곡의 구조나 음악이론 등을 배운 적이 없음에도 반복해서 들으면서 스스로 악곡에 맞게 화음을 즉흥적으로 넣는 실력이 되었다.

발표회를 하면 곡 분위기를 바꿔 전체적으로 다른 유형으로 3가지 형태의 무대를 준비해야 한다. 지오가 두 번째 무대 곡을 준비하고 음악의 분위기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느낌으로 목소리를 내고 연습하는 것을 보면서 곡의 흐름과 분위기를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파악했다.

지휘를 담당하면서 아이들의 변화하는 모습을 가장 가깝게 지켜본 교사는 초반 몇 회기 동안은 학생들과 소통하지 못했고, 공감하지 못함으로써 때로는 억박을 지르는 등 원하는 소리가 나지 않아 속상했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재능에 맞는 악기를 담당하게 하고 점심시간에 야구연습을 몇 번 같이 하면서, 장난도 치고 대화를 나누는 과정을 통하여 좀 더 학생들을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었고, 목소리의 개성과 재능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선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밝히고 있었다.

## 2) 집중하게 해주는 활동

회기가 지나가고 발표회가 다가오면서 가장 많이 놀란 것은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을 포함한 합창단 학생들이 열정적으로 연습에 참여한다는 것이었다. 자세교정이나 본인들의 합창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노래를 외우기 위해서 계속 연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하루 일과의 대부분을 합창 프로그램 곡을 들으며 지냈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은 자진해서 야간 연습을 교사에게 요구하였고, 매일 남아서 연습하고 싶다는 열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실제 무대에서 긴장하는 교사들과는 달리 대부분의 학생들은 긴장하지도 않고 리허설부터 실제 무대가 끝날 때 까지 최선을 다하며 웃음을 잃지 않고 열정을 다하였다. 특히 지오는 교실 학급 칠판 앞에 곡 가사 전체를 붙여놓고서는 복도에서도 점심시간과 쉬는 시간을

이용해 계속 연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칠판에 가사를 붙여두고선 아침에 등교해서 연습을 시작해 쉬는 시간마다 연습을 해요, 지오는 생활 자체가 합창과 음악인 것 같아요, 일상생활에서 늘 음악을 듣고 합창연습을 하며 울동연습으로 시간을 보내거든요, 아침에 등교할 때 1층 음악실에 들어서 오늘 연습 일정을 확인해요, 연습이 없는 날이면 점심시간에 연습을 하고 싶다고 담임교사에게 요구하기도 했고, 하교 시 내일 연습일정은 어떤지 본인이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빠짐없이 질문하고 해요, 세상에서 음악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열정이 넘쳐요. (A교사)

요한이와 시아가 담당하는 쥘베와 카혼은, 타악기로서 주법이 간단하기는 하지만 계속 연습하다보면 손바닥과 손목이 아플 수 있다. 요한이와 시아가 열정이 넘쳤으며, 하교 후에도 연습을 하고 밤에 야간연습도 하기 때문에 몸이 힘들 수 있음에도 그 상황을 피하려 하지 않고, 아픈 것도 대수롭지 않게 당연시 여기고 있었다.

요한이가 손목 스냅을 이용해서 연주해야 하는데 요령 없이 그저 열심히 하니깐 손목이 더 아프고 손바닥이 아프잖아요, 그런데도 제대로 합창단노래랑 맞춰야 하고... 본인이 실수하면 노래랑 안 맞아진다는 걸 알고 참고서 계속 연습을 해요, 와... 내가 타악기 연수 받아서 손목이 아픈 적 있었는데 그게 고통이 심하거든요, 그런데 참고 또 연습하고 계속 박자 맞춰달라고 하고...열정이 대단해요. (A교사)

시아가 손바닥에 물집이 잡혀서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창 연습하면서 반주에 맞추려고 악기연습을 열심히 해서 그런 거라고 설명을 해주는데, 평상시에 어리광 많이 부리고 투정도 많고 해서 금방 포기하겠구나 싶었는데 참고 연습하는 모습을 보고 기특했습니다, 시아가 저렇게 합창이 재미있고 악기연주가 재미있구나 싶어 열정적인 모습을 보니 신기하기도 하구요. (B교사)

B교사는 시아가 손바닥과 손목이 아프다고 말하면서도 계속 연습하는 진지한 모습에서 평소와는 다른 열정이 느껴졌고, 성실히 연습하며 힘들고 지친 연습과정을 참아내는 태도와 열정이 인상 깊었다고 표현하였다.

#### 4. 보석처럼 반짝이는 화려함

##### 1) 빛나는 존재로 느낌

합창단원들은 오랜 시간 연습을 하고 그 연습을 바탕으로 하여 정기발표회와



공식적인 초청행사에 참여해서 화려한 연주의 시간들을 맞이하게 되었고, 수상하는 기쁨의 순간도 함께 나누었으며 수많은 관객들의 박수를 받고 무대조명을 받게 되는 찬란한 순간을 경험했다.

집에서 여동생들이 나한테 막 대들고요, 내가 하라는 걸 잘 안해요, 말도 듣지 않고요, 여동생 들이서는 친한데 나랑은 잘 싸워요, 그런데 엄마랑 같이 정기연주회 구경 와서는 내가 입은 검은색 치마 예쁘다고 했고 언니 아까 예뻐다고 노래 잘했다면서 그러던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동생들이 이제 내말을 잘 들으면 좋겠어요,  
(보리)

나도 우리 형처럼 무대에 서니깐 좋아요, 우리 형은 마림바를 잘 쳐서 자주 공연을 해요, 형이랑 같이 연습했어요, '나무를 심자' 할 때 내가 캐스터네츠 치면서 노래할 때요, 그때 형이랑 같이 연습하면 재미있고 형처럼 나비넥타이 하고 발표회 때 신났어요, 엄마랑 형이 같이 꽃도 줬어요, 엄마가 성가대 선생님한테 자랑한다고 했어요,  
(지오)

보리는 여동생들에게 발달장애로 인하여 인정도 못 받았었고 동생들이 언니를 대하는 태도가 좋지 않아 자주 싸운다고 했었는데, 정기발표회 때 와서 언니가 예쁜 무대복을 입고 연주하는 모습을 보고는 집에서 보리를 대하는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가 있었음을 느낄 수 있다고 하였다. 지오 역시 어머니와 형이 늘 안쓰럽게 생각하고, 혼자서 잘 해내지 못한다는 불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발표회 때 긴 시간동안 지오가 독창을 하는 장면과 박자에 맞추어서 타악기를 연주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오에 대한 생각의 변화가 많았다고 하였다.

가족뿐만 아니라 여러 인간관계 속에서 발달장애학생들도 무엇인가를 배우고 노력한다면 충분히 발전할 수 있는 존재, 빛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고 합창을 통해 모든 관계 속에서 한층 더 성숙해지고 인정받는 존재로 전환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발표회 준비를 하면서 환희는 울동을 교사와 함께 만들고, 울동을 잊어버리고 잘 따라하지 못하는 친구들을 지도하기도 하고 친구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나 틀리는 부분이 있으면 자세히 알려주고 이끌어주는 모습을 보였다. 그 과정에서 환희는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거에 보람을 느끼기도 했고 자신감이 생겨 행복하다고 말했으며, 이러한 과정을 겪으며 발표회를 준비한다는 것은 단순히 연습하고 무대에서 실수하지 않는 등의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연습하는 과정에서도 학생들이 서로를 인정하고 함께 생활하며 도움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문화도 배울 수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었다.

## 2) 아쉬움과 허무함

발표회 전에 면담에 참여한 대부분의 학생들은“합창이 재미있고, 연습이 크게 힘들지 않았고 금상을 받고 싶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발표회가 끝난 뒤 면담에는 “힘들었어요. 이제 안 해요.”라고 말하며 무대가 끝난 뒤 느끼는 허무함과 무대에서의 실수에 대한 좌절감을 표현하였다.

정확하게 말을 잘 못하겠어요, 그리고 모르겠어요, 그때 서울 가서 금상을 못 받아서 화났어요, 그래서 힘들었어요, 요즘은 노래하기 싫어요, 카혼도 치기 싫구요,  
(요한)

발표회가 끝난 뒤 면담에 참여한 학생들 중에서 요한이가 가장 큰 불만을 나타냈다. 대회에 참여만 하고 수상을 못하니“싫어요.”라는 표현을 많이 하면서 큰 무대 뒤의 허무함과 공허감을 느끼고 있었다. 또 앞으로 이렇게 무대 위에서 연주하고 긴 발표회를 하려면 지금만큼 힘든 연습을 반복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회피하고 싶고, 합창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게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합창에 참여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합창연습으로 인해 과부하가 걸려 보이기도 하였고 공허함으로 인해 쉬는 것을 원하고 있었다.

울동하는 것도 재미있고 노래하는 거... 재미는 있는데요, 연습 많이 하는 건 힘들어요, 목도 아프고, 금요일에 연습 없음 교실에 그냥 있어도 되겠네요, 그냥 교실에 있고 싶어요, 친구들이랑...  
(라라)

라라는 평소에 음악과 울동에 관심이 많고 연습 참여도 모범적으로 잘했으며 문제 없이 지시에 잘 따라왔었는데 갑자기 연습시간을 회피하고 쉬는 것을 원하고 있었다. 이는 연주가들이 일반적으로 큰 무대를 끝낸 뒤, 자신의 연습량과 능력에 비해서 만족스럽지 못한 연주가 되었을 때 경험하게 되는 허무함과 아쉬움이 슬럼프로 연결되는 것과 비슷한 상황으로, 학생들이 합창에 흥미를 잃지 않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좋아하는 가요를 편곡해서 연주하는 등의 연습방법의 기획도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진다.

## 5. 선생님과의 소통을 통한 배움터

### 1) 있는 모습 그대로

교사들이 발달장애학생을 이해하기 위해서 현재 발달장애학생의 상황을 인지하고

많은 대화를 통한 상담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하여 교사와 학생의 정서적 공감이가 형성되었다. 학생들과의 상담은 시간에 관계없이 수시로 이루어졌으며,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은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 그리고 연구 참여 학생 6명 중 4명의 학생이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이라서 방과 후 시간을 많이 이용했다고 하였다. A교사는 지오가 학교생활을 비교적 잘하고 있으나 전공과로의 진로 문제 등으로 자주 상담을 하고 있으며, 방과 후에 기숙사로 입실하기 전 조용한 시간에 주로 상담을 한다고 하였다.

진로문제 때문에 상담을 자주해요, 부모님과 본인이 전공과로 가고 싶다는 목표 의식이 뚜렷해서 방향도 정해주고 준비해야할 것 등이 많아 기숙사 들어가기 전에 자주 상담을 했어요, 그리고 타악기 연주 등으로 관심 있는 분야가 비슷해 상담하면서 저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둘이 악기 연주 이야기를 한 적도 있네요,  
(A교사)

B교사는 시아에게 가정에서 느끼는 소외감과 불안함을 채워주고 싶어서 어떠한 고민이라도 귀 기울여 들어주었으며, 수업시간 이외에도 모르는 것을 질문할 때는 언제든지 대답해주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특히 B교사가 음악전공자이기에 음악에 대한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해주면서, 시아와 B교사 간에 소통과 공감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었다고 한다.

시아가 '바닷가에서' 합창할 때 느린 부분에서 빠른 부분으로 갑자기 변화되는 그 부분이 시작되면, 언제 치고 들어가야 될지 몰라서 헛갈린다고 하더라고요, 합창 연습 끝나고 와서 기숙사 들어가기 전에 고민하고 있어서, 제가 악보를 보자고 해서 둘이 같이 손뼉 치기를 하면서 박자나누기를 알려줬어요,  
내 말에 집중하면서... 같이 손뼉 치기를 할 때... 시아가 잘못 들어가니 큰소리로 둘이 웃고... 다른 아이들 하고 시키고 교실에서 연습했던 기억이 나요, 시아랑은 합창이야기, 음악이야기 하면서 더 많이 친해지고 가까워진 거 같아요, 저도 전공이 음악이니깐 음악이야기를 하면 좋기도 하구요,  
(B교사)

## 2) 스스로 할 수 있다는 희망

발달장애학생은 학습활동에 있어 계획을 세워서 한다거나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러한 생각들로 인해 능동적인 학습활동이 힘들고 교사들도 계획을 세워 지도하기가 힘들었다. 반복되는 실패 속에 학생들이 방치되는 경우가 있었으며, 수업참여가 점점 어려워지면서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B교사는 수업을 위한 자료를 만드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한다. 시아는 수업에

관심이 없어 하고, 자극적인 동영상 자료에만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과제를 제시해도 의욕이 없기 때문에 과제 제시하는 방법에도 큰 스트레스가 있다고 말하였다.

시아는 유튜브를 통해 가요를 듣고 자기가 보고 싶어 하는 음악이 있으면, 큰 목소리로 반에 있는 다른 아이들을 선동해 그걸 보자며 저에게 계속 요구해서 수업에 방해를 많이 했어요. 지켜보다가 시아가 쉬워하는 과제를 내주기도 하였고... 그래서 좀 차분해지면 수업을 다시하고... (B교사)

B교사는 시아가 특히나 수학시간을 싫어하는데 있어 과제제시가 힘들었다고 하면서 합창반주를 위한 썸메 연주가 적극적인 수업참여에 상당한 촉매제가 되었다고 말하였다. 시아가 썸메 연주에 관심이 많고 연습에 열정적이니 수학시간에 박자 쪼개기를 2박자부터 시작하여 가르치면서 음표 나누기 등을 적용해 쉬운 연산을 시작하면서 조금씩 수학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고 한다. 윤난주(2014)의 연구에서도 수학과 음악이 별개라고 생각하던 기존의 인식에서 벗어나 통합적 시각을 학생들이 가질 수 있도록 피타고라스 음계, 순정률과 같이 음악과 관련된 수학적 내용을 가지고 수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였으며 심다영(2014)은 나의 음악 나의 악기'라는 주제로 연결된 프로젝트를 구성, STEAM의 5가지 과목을 융합하여 음악과 수학을 피타고라스의 평균율, 비례, 유리수, 무리수, 등차수열 등의 내용으로 다루었다

A교사는 지오가 방치되지 않도록 수준에 맞는 학습지를 제시해야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대체학습을 하되 그 내용 중에서 수준에 맞는 학습이 되도록 조화를 이루는 것이 가장 힘들다고 했다. 그래서 지오는 음악과 합창을 하루 종일 생각하는 학생이니, B교사와 비슷한 방법으로 음악적인 부분을 자극시켜 눈높이에 맞는 과제를 제시해보는 노력을 했었다고 한다.

합창에 참여하였던 발달장애학생은 수많은 합창곡들을 듣고 부르면서 주변의 소리를 듣게 되고, 그 소리와 관계로 시작으로 주변의 소리를 탐색하기 시작했다. 소리에 대한 탐색은 상상력 증진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수업참여에 중요한 요소인 듣기의 바탕이 된다. 합창경험을 하면서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 친구들의 소리와 나의 소리를 들으면서 소리에 대한 호기심이 상상력에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업시간에 교사가 말하는 소리에 집중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소리에 대한 탐색과 즐거움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초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시아가 합창을 하고 썸메 연주를 하면서 물론 선생님과 내가 따로 박자 연습을 많이 시키기는 했지만요, 우리가 박자 연습을 많이 시키면서 설명 하는 시간이 길었잖아요, 꾸준히 연습했던 것이 수업시간에도 연결되어져서 뭐랄까... 내말에 주목하는 시간이 길어진 거 같아요, 이런 시간이 반복되면서 수업에 집중하는 시간이 길어지

니깐 수업내용에 대한 이해가 예전보다 나아지게 되고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거 같아요, 그리고 과제나 학습지를 하는 시간도 좀 길어진 것 같아요,  
(B교사)

라라가 집중력이 좋아졌어요, 자리에서 움직이면서 돌아다니는 게 많이 줄었어요, 집중력이 좋아지니깐 수업태도가 좋아지고 발표도 잘하고 수업에 전에 보다 참여도가 좋아요,  
(D교사)

이는 여러 명의 친구들과 화음을 맞춰야 하고 긴 호흡을 맞추어야 하는 합창의 특성상, 집중하지 않으면 리듬연결 자체가 안 되어 다른 가락으로 넘어가지 못하니 자연스럽게 집중하게 되었고 스스로 적절한 집중방법을 알게 되면서 지속시간이 길어졌다. 또한 처음에는 단선율로 합창하고 화음을 넣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끊임없는 반복학습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과정에서 발달장애학생의 집중력이 좋아졌고 이는 수업태도의 향상으로 연결되었으며 그 결과 수업에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 6. 친구들과 함께하는 세상

### 1) 도와주는 기쁨과 모방하는 친밀감

발달장애학생들은 모방하기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요들송’이 나오는 부분에 지오가 악기 연주를 시작해야 하는데 들어가는 박자 부분에서 자꾸 틀린다, 스스로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들어가야 하는지 지휘자 선생님의 사인을 못 읽어내고 오로지 창민이만 보고 창민이가 들어가는 부분에서 똑같이 따라만 하고 있다.

(9월 29일 현장노트)

합창시간에 교사의 지시에 따라 리듬을 따라하지 못해서 자기순서에 가까워질수록 불안해하던 지오는 같은 악기를 담당하는 창민이만 쳐다보고 있었다. 창민이의 연주부분을 똑같이 따라 하기 시작하면서 창민이의 소리와 움직임에 집중했으며, 모방하면서 실수가 줄어들자 표정도 좋아지고 밝아졌다.

시아가 요한이를 잘 따르고 좋아하잖아요, 같이 학예회 연습을 할 때, 요한이가

느낌으로 화음을 잘 넣는데 평상시에는 괜찮으나, 이번 곡 느낌과는 다르게 자주 끝내는 화음을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 화음이 조금 틀린데도 시아는 무조건 요한이가 하는 것이 멋있어 보이는지 요한이가 내는 화음을 계속 똑같이 따라 해서 그게 바로 잡느라 한참을 고생했어요, (B교사)

실제로 합창연습을 하면서도 발달장애학생들은 악보를 읽어내지 못하니 소리에 더욱 집중하고 그 소리를 듣고 따라하는데, 합창에서 영향력이 있는 한명의 학생이 잘못된 소리를 내면 듣고 따라하는 학생들이 연속해서 그 소리를 고집스럽게 따라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를 교정시키고 정확한 음을 내려고 훈련시키는 과정이 꽤 힘든 경우가 많았다.

지오랑 같이 학예회 연습하면서, 못 따라오니까 무조건 앞에 있는 동훈이를 따라서 치고 들어오라고 했었어요, 어떤 학습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말로 설명하기 복잡하잖아요, 그때는 따라 하기, 모방이 좋은 학습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을 지도할 때 어떤 방법으로 설명하기 복잡한 순간일 때는 '따라 하기' 방법이 장애학생들에게는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A교사)

이렇게 또래학습자에게 모방을 통한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은 긴장하지 않고 또래와의 편안한 분위기에서 상호작용을 통하여 학습효과를 높이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으며, 동훈이의 경우처럼 또래에게 지도하기 위해 더 열심히 하며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요한이는 합창발표회를 준비하면서 테너 파트연습에서 파트장을 맡아서 자신보다 연습속도가 더딘 친구들을 직접 지도하고, 다른 친구들이 어려워하거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친절하게 시범도 보여주면서 합창연습을 이끄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요한이는 또래에게 가르치는 기쁨도 느꼈을 것이고 책임감과 자신감이 상승되어 전반적인 학교생활을 밝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며 요한이 덕분에 합창연습에서도 서로를 도와주려는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요한이는 교실에서 친구들을 잘 도와준답니다, 마치 동생을 대하듯 그렇게 도와주거든요, 점심시간에 급식실로 이동할 때면 늘 '같이 가자'라고 하면서 혼자 뛰어가거나 먼저가질 않아요, 중학교 때랑 많이 달라진 거 같아요, 요즘은 친구들에게 뭐든지 도움주려고 하고 가르쳐주려 해요, (C교사)

발달장애학생에게 서로를 도와주는 또래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또래에게 서로가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의사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수업방해 빈도수도

줄어들어 수업의 질이 향상될 수 있으며 적극적인 수업참여로의 유도가 쉬워질 수 있다.

## 2) 부정적인 행동을 줄여 주는 절제와 양보

B교사는 시아가 학급에서의 생활습관 등 다른 행동도 많이 좋아졌지만 특히 남의 물건에 손을 대는 행동이 줄어들고 있음이 가장 기쁘다고 하였다. 가정에서 아버지가 늘 바쁘고, 어머니의 부재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장난삼아 친구들의 물건을 몰래 가져오던 버릇이 생겼다. 전학 오기 전 학교에서는 나쁜 학생으로 낙인 되어버렸고 또래 관계에서 무시당하고 있었다고 한다. 전학을 와서도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 친구들과 놀고 싶은데 어울리기가 힘드니, 또 친구들의 물건에 손을 대고 하는 버릇이 생겼다고 한다. 능력 없고 불량학생으로 낙인 되어버렸던 존재에서 합창은 물론, 짬뽕 연주까지 잘하는 존재로 위치가 변경되는 것을 지켜볼 수 있었다.

특송도 하고 합창단도 하고 악동밴드까지... 학교행사에 앞에 나서서 해야 하고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걸 스스로 느끼면서 잘하고 싶고 칭찬 듣고 싶어 하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커지니... 그리고 연습도 해야 하고 집중할 곳이 생기니깐 예전보다 도벽이 줄어들었어요. (B교사)

보통 무대 조명이 주황색이잖아요, 그 주황색 조명이 따뜻하게 느껴지고 사람들이 우리 노래 듣고 박수칠 때 기분이 좋아요, 저번에 '넌 할 수 있어'를 서울에서 부를 때, 사람들이 다 일어서서 손뼉 쳐줄 때 행복했어요. (시아)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무대에서 연주할 때 느껴지는 따뜻한 환대와 칭찬의 박수에 청중과 교감하며 합창단의 구성원으로서 만족감을 얻었고, 함께 노래를 부르며 화음을 맞추는 과정들은 긴장된 일상 속에서 여유로움의 감정발산 및 절제를 배우도록 하여 더 안정된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되었다. 또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에 도벽 등의 부정적인 행동이 감소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었을 것이다.

지오는 또래와의 관계에서 소극적인 편이라서 매사에 자신감이 떨어지고 상처를 많이 받는 편입니다, 친구들에게 다가가고 싶은데 용기가 없으니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서 고집을 부리거나 우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런 상처를 음악으로 풀어내는 모습이 보입니다, 인정 못 받고 본인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속상함이 있었는데, 합창을 하면서 내재되어 있던 스트레스도 분출하고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는 게 많이 줄었어요, 친구들 앞에서도 우는 모습이 줄었습니다. (A교사)

A교사와의 면담에서 지오는 합창을 하면서 자신의 내면세계를 느낌이나 감정을 실어 표현하게 되었고, 마음이 안정됨과 동시에 풍부한 정서함양을 키울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합창경험을 통하여 좀 더 긍정적이고 또래에 대한 배려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인간으로 성장되었으며, 또래관계도 개선되고 안정된 심리상태를 가질 수 있어 생활태도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고 보여 진다.

C교사는 요한이가 목소리에 대한 불만이 느껴진다고 말하고 있다. 한참 사춘기를 경험하고 있는 고등학생인 요한이는 변성기를 지나면서 고음을 내는 것이 불편하고 목소리가 마음에 들지 않게 변해있는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아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큰소리로 발표하기도 꺼려하며 또래 관계에서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었다고 말한다.

요한이가 고음을 어려워해서 소리를 거의 내지 않고 자신감 없는 모습을 보이자 지휘자 선생님이 비교적 쉬운 '고향땅' 남성파트를 불러보게 한다. 고향땅은 가사도 쉽고 크게 높은 음이 없어 거부감 없이 부르며, 요한이에게 독창을 시키고 잘한다고 지난시간에 비해 목소리가 좋다고 칭찬을 하신다. 고음에 욕심 부리지 말고 등근 소리를 만들어보자고 하니 요한이 표정이 밝아졌다.

(9월 15일 현장노트)

요한이는 화가 풀리면 점심시간에 야구를 해요, 기분이 좋지 않거나 화가 나 있는 날이면 친구들이 아무리 불러도 제일 좋아하는 야구를 하러 나가지 않고 교실 컴퓨터 앞에서 아무 말 없이 앉아만 있거든요, 서울 대회 다녀오고 나서는 기분이 좋아져서 더운데,,, 매일같이 명기랑 동훈이와 야구하러 나가네요, 슬쩍 물어봤더니 서울에서 엄청 잘했다고 하던데요.

(C교사)

라라는 늘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해요, 학급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면 먼저 울면서 '억울하다'고 말하거든요, 소심하게 행동하니깐 자신감이 늘 없지요.

(D교사)

라라가 항상 시작할 때 처음부터 음을 내지 않으려고 한다. 본인이 내는 소리에 자신이 없어서인지 노래하는 자세도 어깨를 펴지 않고, 움츠려서있으며 친구들이 음을 시작하고 난 뒤 음을 듣고 따라낸다. 그 훈련을 시키려고 시작하는 부분을 계속 반복 연습하고 있다.

(5월 26일 현장노트)

라라가 악보를 읽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음악을 반복해서 들었고 그 속에서 멜로디와 박자를 익히고, 교사가 자세하게 수정해주면 고쳐나가면서 한 곡을 완성해



나가는 방법으로 합창곡 전곡을 다 암기했다. 무조건 외우겠다고 다운받아서 계속 듣는 열정도 보이면서 연습시간에는 거의 틀리지 않고 가사를 암기했다. 교사들 사이에서도 합창단에서 가장 모범적인 학생으로 인정받는 동시에 또래 친구들에게도 율동지도를 하는 등, 서서히 인정받고 안정되면서 자신감이 많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

## IV. 논의 및 제언

### 1. 논의

이 연구는 발달장애학생의 합창경험에 대한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서 질적연구의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발달장애학생의 합창경험에 대한 의미는 6개의 대범주로 도출되었다. 이를 중심으로 연구결과에 대해 논의를 하였다.

첫째, 발달장애학생에게 합창경험은 “새로운 세상과의 만남”이라는 의미가 있었다. 즉 합창경험은 발달장애학생에게 새로운 환경으로의 접촉기회를 주어 행복한 감정을 느끼게 해주고, 새로운 공간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무대를 접하며 가보지 못한 새로운 장소를 구경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최병철(2006)의 연구에서 타인과 함께 하는 새로운 음악경험은 역동성을 가지고 음악활동에 참여시키며 동기를 유발시키고 바람직한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도록 유도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의 결과와 맥을 같이 하였다. 본 연구에서 발달장애학생은 합창경험을 통하여 이전에는 관심이 없었던 사물이나 환경에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고, 행복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또한 집단음악활동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유아의 부적응 행동과 정서조절 능력 및 사회적 관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연구한 서종미(2013)의 연구에서는 소리 내는 즐거움과 이전에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연주경험이 타인과의 만남에 대한 새로운 경험과 함께 자신과 타인, 세계에 대한 이해의 깊이를 더해 나간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발달장애학생은 다른 학생들이 경험하기 힘든 합창단복을 갈아입고 무대 의상을 서로가 함께 챙겨주는 등의 무대 뒤의 준비과정 및 무대에서의 긴장감을 공유하면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퓨전 합창을 통한 발달장애학생의 공감 형성과정을 탐색하고 실행 연구한 정진아(2016)는 발달장애학생에게 합창경험은 호기심과 즐거움의 설레는 고민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면서, 성과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교육현실에서 종종

제외되었던 발달장애학생이 본 연구에서와 같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던 합창 경험은 그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지목한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었다.

시각중복장애학생의 연주경험의 의미를 연구한 신연서(2016)는 연주경험을 통하여 새로운 관계에 자연스럽게 노출되면서 타인과 음악에 관련된 대화를 하면서 생각의 폭이 넓어졌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는데, 발달장애학생은 합창경험 과정을 통하여 자신과 타인, 그리고 학교생활에 대한 이해를 더 깊게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에 기초할 때, 발달장애학생의 합창을 지도할 때는 소리 내는 법이나 음악의 기술적인 부분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합창경험 그 자체를 통하여 학생들이 음악을 느끼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어떤 활동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발달장애학생에게 합창경험은 “숨겨진 재능을 발견하는 행복”이라는 의미가 있었다. 즉 발달장애학생은 발표회와 대회를 준비하며 연습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음악적 재능이 발견되었고, 음악적인 기능들이 한 단계 더 발전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합창활동을 통한 꾸준한 발성연습은 바른 자세로 설 수 있게 하였고 반복되는 복식호흡으로 인해 체력을 길렀으며, 그 과정 속에서 성취감을 느끼고 시간이 누적될수록 성량과 소리가 풍부해졌다는 정지현(2005)의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발달장애학생이 합창활동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부정적인 마음을 잊는 동시에 본인의 콤플렉스를 극복하고자 능동적, 역동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에서 무엇인가를 잘 해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에게 만족감을 느낀다고 하였다.

이렇게 숨겨진 음악적 재능을 발견하는 모습은 자폐범주성 장애 유아가 음악활동으로 인하여 평소 인식하지 못했던 음악적 재능의 발견은 자신은 물론 타인을 인식하고, 대인관계 형성 뿐 아니라 자아를 판단하게 되면서 인격의 재구성을 이룰 수 있다고 한 양은아(2010)의 연구와도 일치하였다. 그리고 이유진(2000)의 음악활동이 정신지체 청소년의 사회생활 능력향상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에서도 음악활동 경험을 통하여 이전의 능력 없는 존재로 인식되어져 있던 환경에서 벗어나 새로운 위치를 부여받아 사회생활 능력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합창경험을 통한 음악적 재능의 발견으로 인하여 연구에 참여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스스로 야간 연습을 자처할 만큼 힘들어하지 않고 활동에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음악의 완성도가 높아졌다. 나아가 이러한 성취동기와 성공경험은 각 학생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아실현을 이룰 수 있는 삶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합창경험의 과정 안에서 발달장애학생은 신체적 결함이나 음악적 능력의 부족 등에서 비롯되는 한계에 갇혀 있지 않고 학업적 성취 이외의 다른 재능으로 인정을 받았으며, 오로지 자신들이 가지는 재능으로 무능력한 존재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존재로 거듭 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발달장애학생에게 합창경험은 “모든 것을 잊게 하는 몰입”의 의미가 있었다. 즉 연구에 참여한 대부분의 발달장애학생이 악보를 읽지 못하기에 오로지 소리를 듣고 암기하여 악보를 표현하려고, 더 집중하고 많은 시간이 걸려도 악곡을 정확하게 표현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악보 없이 듣는 것에만 의존하여 노래함으로써 학생들이 교사에게 더 집중하게 되었고 반복 듣기를 통하여 자유롭게 머릿속에서 악보를 만들어가고 악보에 접근하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학습능력도 향상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음악경험이 성인 발달장애인의 정서를 자극, 이완시키며 집단 응집력과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게 하고 몰입하는 주의집중 시간을 증가시켜 주어 적응행동을 위한 통로를 제공한다는 신경숙(2017)의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하였다.

합창발표회가 다가오자 학생들은 점심시간과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계속 연습을 하였으며 연습과정에서의 진지한 모습에서 평소와는 다른 열정이 느껴졌고, 힘들고 지친 연습과정을 참아내는 몰입과 노력하는 태도는 무대 위의 연주로 이어져 당당하게 무대공포도 이겨내고 진정으로 무대를 즐기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부분의 연주자들이 청중이나 심사위원을 의식하게 되며 타인의 평가에 신경을 쓰느라 연주를 편하게 못하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인다는 정지현(2005)의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즉 본 연구에서는 발달장애학생이 긴장하지 않고 즐기고 있었으며 연주에 집중하면서 무대 위에서 서로를 의지하고 믿으며 자연스럽게 공감하면서 소통하는 과정을 경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연습을 하거나 관중들 앞에서 노래하면 자기 자신을 잊어버릴 정도로 빠져드는 몰입을 경험하고 이러한 몰입으로 인하여 성공적인 발표회를 마칠 수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발달장애학생은 자신의 음악세계를 확장할 수 있는 음악적 성장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기초할 때, 학생들의 집중력 향상을 위해서는 교사도 다양한 방법으로 교수방법을 수정함과 동시에 학생들 스스로가 집중하고 몰입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고 학생들을 격려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넷째, 발달장애학생에게 합창경험은 “보석처럼 반짝이는 화려함”의 의미가 있었다. 합창단원들은 오랜 시간 연습을 하고 그 연습을 바탕으로 정기발표회와 초청행사에 참여하여 수많은 관객들의 박수와 환호를 받고 화려한 무대조명을 받게 되는 찬란한 순간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은 가족이나 여러 인간관계 속에서 그동안 무시 받던 존재에서 벗어나 발달장애학생들도 충분히 빛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고, 모든 관계 속에서 한층 더 성숙해지고 인정받는 존재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합창 정기발표회가 또래의 일반 학생들에 비하여 낮은 수준으로 이루어졌지만, 무대에 오르기까지의 모든 활동을 직접 경험해 보면서 성취감과 과제에 대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천인현(2015)의 연구와도 그 맥을 같이

한다. 그리고 신연서(2016)는 시각중복장애학생의 찬란한 연주의 순간은 장애로 인한 사회적인 통념을 넘어서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 연주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교육적 의미를 가지며 친구와 가족, 교사들에게 인정받는 존재로 인식하게 된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발달장애인의 여가 음악활동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를 한 신경숙(2017)은 무대경험이 발달장애인에게 자신의 존재를 타인에게 알리는 하나의 수단이 되었으며 다수의 청중들 앞에서 연주하였을 때, 그들이 음악을 듣고 노래를 따라 부르는 모습에서 당당하게 자아를 찾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의 발달장애학생들이 무대에서 느끼는 환호 및 박수의 의미와 유사한 결과로, 합창경험을 통하여 청중과의 비언어적 상호교류가 있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에 기초할 때, 합창경험은 발달장애학생의 자존감 및 정서적 안정감을 강화시킴으로서 최종적으로는 바람직한 인격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활동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발달장애학생이 심리적인 안정과 정서적인 회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학교 실정에 맞는 음악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발달장애학생에게 합창경험은“선생님과 소통을 통한 배움터”의 의미가 있었다. 즉 합창경험을 통해 발달장애학생들은 교사들과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어 학교가 소통의 배움터가 될 수 있었다. 그리고 학생들은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안정된 학교가 될 수 있었다.

이러한 교사의 수용태도에 대해서 박외곤(2013)은 교사들이 장애학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교감형성이 이루어지도록 서로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교사를 어려워하지 않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교실에서 자신을 이해하고 지지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와 맥을 같이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관심 분야에 대하여 교사와 학생이 주제와 상관없이 이야기하고, 또래친구들과 소통하기 힘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신뢰감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정서적 공감이 이루어졌다.

정진아(2016)의 퓨전 합창경험에 관한 연구에서도 학생들의 현재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며 공감과 존중으로 다가갈 때, 그들 내부에 있는 무한한 성장 가능성으로 인하여 발달장애학생도 완성도 높은 퓨전 합창을 해낼 수 있다는 유사한 연구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은 발달장애학생과의 더 많은 공감과 소통을 위해 학습에 관련된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았고, 일상생활에 대한 이야기나 학생들이 좋아하고 관심이 있어 하는 분야에 대하여 장소와 주제 상관없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발달장애학생들과 자연스럽게 신뢰감이 생기면서 학생 스스로가 다가와서 먼저 이야기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또한 수많은 합창곡들을 듣고 부르는 과정에서 소리를 듣는 훈련이 이루어졌으며, 그 소리와의 관계를 시작으로 주변의 소리를 탐색하면서 수업참여에 중요한 요소인

집중하기의 바탕이 될 수 있었다. 즉, 교사가 말하는 소리에 집중을 하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었고 이런 과정이 발달장애학생의 수업태도 향상으로 연결되었으며, 집중력이 좋아지고 결과적으로 수업에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는 김현주(2002), 류미정(2008)의 연구결과 음악활동 프로그램 그 자체가 장애학생의 주의집중력 향상을 가져오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흥미를 유발시키고 그와 함께 동반되는 부적응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지목한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 발달장애학생들은 발표회 곡들을 반복하여 부르면서 그동안 분출해 내지 못한 감정들을 가사로 무의식적으로 표현했을 것이며, 소극적이며 교사의 시선에 부담스러워하던 학생들은 자신이 맡은 역할을 꾸준히 수행하면서 교사에게 칭찬과 보상을 받아 더 즐겁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었다. 따라서 발달장애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소외되지 않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수용과 소통 및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여섯째, 발달장애학생에게 합창경험은 “친구들과 함께 하는 세상”의 의미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학생이 음악적 교류 경험과 대인 관계적 교류 경험에 대한 역동적인 교류과정을 보였고, 집단 속에서 또래와의 관계가 하나로 되어가는 감정을 갖게 되었으며, 개별 활동보다 훨씬 역동적인 경험과 에너지를 발견하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였다는 진소영(2009)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또한 박지영(2014)의 연구에서는 오르프 음악교수법을 적용한 자폐성장애학생의 사회적 상호작용은 또래의 활동을 주의 집중하여 관찰하고 모방하는 활동을 수행하면서 자신의 의사를 언어적 표현으로 표현하였고, 또래와의 집단연주에서 악기를 서로 전달하고 주고받는 등의 도움주기를 통하여 즐거움을 유도하여 편안하고 안정된 학습 분위기가 조성되었음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발달장애학생들이 서로가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의사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수업방해 빈도수가 줄어들었으며, 수업의 질이 향상되고 적극적인 수업참여로의 유도가 쉬워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연구가 진행되면서 같은 공간에서 대화도 나누지 않았던 친구들과 울동을 하고 가사외우기 게임을 하면서 손을 잡는 등의 자연스러운 신체접촉을 통하여 친밀감을 느꼈고, 학교에 오고 싶어 하는 동기가 되었으며 문제 행동을 감소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아름다운 가사와 선율로 화음을 맞추는 과정들은 긴장된 일상에서 여유로운 감정의 발산 및 절제와 통제를 배우도록 하여 도벽이나 고집스럽게 소리 지르기 등의 문제행동이 줄어드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이는 음악극 프로그램이 유아들의 상호작용 행동을 증가시키며, 부정적 행동양상은 감소하였다고 한 주효주(2012)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음악을 활용한 프로그램이 또래들과 자연스럽게 협력하여 완성도 있는 음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며, 규칙에

따라 맡게 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또래 관계에서 필요한 사회적 기술 능력을 촉진시켰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학생들 간의 소통과 상호작용의 증가를 위하여, 교사는 합창 및 음악 등과 같은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이 또래들과 소통하고 활동하며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경험을 많이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 2. 제언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는 질적연구로서 긍정적인 효과를 드러내는 결과가 대부분 면담 내용이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결과에서 발견되지 못한 다른 관점이나 발달장애학생의 합창경험이 어떠한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를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발달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다른 장애유형별로 합창을 포함한 음악 영역이 학생들의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볼 필요성이 있다.

셋째, 음악회가 끝난 뒤 장애학생들은 결과와 수상여부에 관계없이 무대가 끝난 뒤 느끼는 아쉬움과 음악적 역량에 대한 좌절감을 표현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향후 이러한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심리치료나 치유프로그램 등에 대한 연구 또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권명숙 (2017). 발달장애인 요리활동 경험에 대한 자문화기술지. 박사학위 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 김동욱 (2007). 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 연주곡목 분석을 통한 바람직한 프로그램의 연구. 박사학위 논문, 계명대학교 대학원.
- 김두희 (2009). 자폐성장애 청소년의 대화 행동 특성에 관한 질적연구. 박사학위 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 김병하 (2000). 특수교육에서 질적연구: 문제의식과 실천 과제. **교육인류학소식**, 6(4), 3-6.
- 김병하 (2003). **질적연구의 이해와 실제**. 경기: 한국학술정보(주).
- 김선아 (2012). 관람자의 의미형성을 위한 박물관 전시의 해석 전략 연구. 석사학위 논문,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수지, 고일주, 권혜경 공역 (2002). **음악치료학 개론**. 서울: 권혜경 음악치료센터.
- 김영천 (2012). **질적연구방법론 I Bricoleur 2판**.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 김영천 (2013a). **질적연구방법론 II: Methods**. 경기: 아카데미프레스.
- 김영환, 이영철, 권득자, 김은주, 류문화, 원종례, 한혜경 (1997). **발달장애학생 언어교육 프로그램 개발 기초 연구**. 경기: 국립특수교육원.
- 김용욱, 이해균, 김성애, 이효신, 최성규, 김영환, 신윤희, 김성범 (2016). **특수교육학 개론**. 서울: 학지사.
- 김용욱, 변찬석, 우정환, 김남진, 이창섭, 이근용, 박정식 (2009). **현장 중심의 학습장애 아동 교육**. 서울: 시그마프레스.
- 김인선 (2016). 유아교사 행복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박사학위 논문, 가천대학교 대학원.
- 김인정 (2008). 합창활동이 ADHD아동의 문제행동 변화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춘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정일 (2005). 비디오 활용 사회상황 이야기가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의 자기결정 표현행동에 미치는 효과. **정서·행동장애연구**, 21(1), 231-251.
- 김청아 (2015). 지적장애 특수학교 음악교사의 수업 딜레마 경험과 의미. 박사학위 논문. 공주대학교 대학원.
- 문중희, 변찬석, 강종구 (2013). 역도훈련을 통한 지적장애 학생들의 경험 연구. **지적장애연구**, 15(1), 131-145.
- 박소연 (2000). 음악활동이 발달장애 아동의 자기표현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 논문, 명지대학교 대학원.
- 박외곤 (2013). 통합교육환경에서 학습장애학생의 교육적 상호작용. 박사학위 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 박형진 (2018). 발달장애학생의 사회적 적응행동 향상을 위한 영화 프로젝트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 박사학위 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 박혜향 (2014). 신체표현활동을 적용한 음악 감상수업이 자폐성 장애학생의 음악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백혜주, 홍정숙 (2016). 중등특수교육 분야의 질적연구 동향과 과제.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7(1), 33-59.
- 성현영 (2012). 음악치료 활동을 통한 특수아동의 도덕성 발달 실증 연구. 박사학위 논문, 경상대학교 대학원.
- 손영화 (2012). 통합교육 문제점에 대한 질적연구. **특수학생교육연구**, 14(2), 91-113.
- 송영혜 (2007). **또래관계 집단과 치료**. 서울: 집문당.
- 신경림, 장연집, 조영달, 김남선 (2003). **질적연구 용어사전**. 서울: 현문사.
- 신연서 (2016). 시각중복장애학생의 연주경험의 의미. 박사학위 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 이소영 (2017). 베이비부머 여성 세대의 음악적 경험과 그 의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경성대학교 대학원.
- 이흥수 (1990). **음악교육의 현대적 접근**.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 장옥경 (2016). 달크로즈 교수법을 통한 ADHD 학생의 음악교육. 석사학위 논문,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 장희정 (2017). 미술치료사의 질적연구 경험에 관한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 박사학위 논문, 영남대학교 대학원.

- 정동영, 김미선, 김정연, 김형일, 김희규, 남윤석, 박선희, 박중휘, 서은정, 오세웅, 이경면, 이옥인, 이필상, 전보성, 정해동, 진흥신 (2011). **특수교육학개론**. 경기: 교육과학사.
- 정진아 (2016). 퓨전 합창을 통한 발달장애학생의 공감(Empathy) 형성과정 탐색 실행연구.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 정현주 (2005). **음악치료학의 이해와 적용**.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조태곤 (2018). 진단되지 않은 학습장애 학생의 학습경험과 그 의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 천호성 (2008). **수업분석의 방법과 실제**. 서울: 학지사.
- 채민 (2009). 상호작용중심 집단음악치료가 지적장애성인의 자기표현과 사회적 기술 향상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 논문, 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원.
- Kim, Y. W., Kim, N. J. (2016). The effect of the universal design for learning on the academic achievement of general students. *Asia Pacific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ies, 3*(2), 5-11.
- Barkley, R. A. (1997). *ADHD and the nature of self-control*. NY: Guildford Press.
- Bogdan, R., & Biklen, S. (2008). *Qualitative research for education: An introduction to theories and methods (5th ed.)*. Boston: Allyn & Bacon.
- Boucher, J., & Lewis. V. (1992). Unfamiliar face recognition in relatively able autistic children.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3*(5), 843-859.
- Brownell, M. D. (2002). Musically adapted social stories to modify behaviors in students with autism: four cases studies. *The Journal of Music Therapy, 39*(2), 117-144.
- Bruscia, K. E. (1998). *Defining Music Therapy*. Gilsum New Hampshire: Barcelona Publishers.
- Church, C., Alisanski, S., & Amanullah, S. (2000). The social, behavior, and academic experiences of children with Asperger syndrome. *Focus on Autism and Other Developmental Disabilities, 15*(1), 12-20.
- Creswell, J. W. (2007).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2nd ed.)*. Sage Publications, Inc. 조홍식, 정선옥, 김진숙, 권지성 역(2010). **질적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접근-**. 서울: 학지사.
- Ehlers, W. H., Prothero, J. C., & Langone, J. (1982). *Mental retardation and other developmental disabilities(3rd ed.)*. OH: Merrill.
- Mahooney, G., & Powell, A. (1988). Modifying parent-child interaction: Enhancing the development of handicapped child.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22*, 82-96.
- McConnell, S. R., Sisson, L., Cort, C. A., & Strain, P. S (1991). Effect of social skills training and contingency management of reciprocal interaction of preschool children with behavioral handicaps.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24*, 473-479.
- Thaut, M. (1987). The influence of music therapy intervention on self-rated changes in relaxation, affect, in psychiatric prisoner-patients. *Journal of Music Therapy, 26*, 155-166.



- Titze, I. R., & Winholtz, W. S. (1993). Effect of microphone type and placement on voice perturbation measurements.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36*(6), 1177-1190.
- Trollinger, V. L. (2003). Relationships between pitch-matching accuracy, speech fundamental frequency, speech range, age, and gender in American English-speaking preschool childre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51*(1), 78-94.
- Watts, C., Moore, R., & McCaghren, K. (2005). The relationship between vocal pitch-matching skills and pitch discrimination skills in untrained accurate and inaccurate singers. *Journal of Voice, 19*(4), 534-543.
- Watts, C., Murphy, J., & Barnes-Burroughs, K. (2003). Pitch-matching accuracy of trained singers, untrained participants with talented singing voices, and untrained participants with non-talented singing voices in condition of varying feedback. *Journal of Voice, 17*, 187-196.

## A Qualitative Study on the Meaning of Choir Experience of Stud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Yoon, Jeong-Ha

Daegu University

Kim, Yong-Wook

Daegu University

### <Abstract>

The choir experience may make possible to provide these reach experiences for effective interaction and social adapting skills. This study was initiated from the question of whether the choir experience, music education in further, could help understanding stud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depth and enhancing their social life in quality. For this ends, this study was employed the choir experience to stud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observed at diverse angles in the process of the choir experience.

For this purpose, this study was to find out how stud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dapt through choir experience in school which is their main life space, what they think about the situations that they encounter while they were preparing for the concert, and what meaning they give to their choir experience.

The following categories were derived from the meaning of the choir experience by stud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ese six major categories were conclude from observation and analysis of social interaction between students and with teachers, and activity experience and adaptation. These categories were 'Meeting with the new world', 'Happiness of discovering hidden talents', 'Immersion to forget everything else', 'Splendor shining like jewels', 'A place of learning through communications with teachers', and 'World together with friends'.

In summary of all the aforementioned results, by analysis of the meaning of the choir experience, stud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their important motivations could be understood. Furthermore, their expression and concentration were improved through the choir experience, which naturally led to the improvement in class attitudes, and enhanced confidence.

**Key Words :** Stud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Choir Experience, A Qualitative Study.

---

논문 접수: 2019. 05. 09 심사 시작: 2019. 05. 09 게재 확정: 2019. 06. 07